



<아내가 떠납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단어 중에 '프리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구글(Google)에서 찾아보니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 단체, 조직 등에 전담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과 능력을 이용해 사회적으로 독립적인 개인 사업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칼럼을 준비하면서 프리랜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를 읽고 사실 좀 놀랐습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세련된 단어처럼 들리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서늘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중세시대로 잠시 거슬러 올라가면요. 유럽의 영주들은 어떤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용병들과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계약된 용병들이 긴 창을 들고 나와서 영주 대신 싸워줍니다. 이처럼 당시 프리랜서라는 의미는 '누군가를 위해 대신 피를 흘리며 싸우는 용병', '쓸만한 창을 소유한 병사' 정도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표적인 프리랜서가 있다면 저는 단연코 '아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한 남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밈니다. 결혼하여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 그 어떤 남자도, 설령 과거에 빛바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그 어떤 관계에도 전담하지 않고 오직 자신이 살아오면서 터득하고 배운 인생기술과 능력을 최대한 동원해 아이들과 남편의 삶을 후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추구합니다.

통상 여성들은 결혼하면서 '여자'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엄마'라는 이름을 선택하게 됩니다. 물론 결혼한 모든 여성들이 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여자가이기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녹록치 않은 현실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 계약직 종사자'로서의 프리랜서, 그렇게 본다면 가정의 아내는 프리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자유가 보장된 계약직이라는 말이 저의 고개를 가양동 하게 합니다. '당신은 아내이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을 해야한다'는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주어진 생활비 안에서 반드시 한 달을 살림해야한다'는 그런 조항을 둔 계약서를 아내들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 아내들의 마음을 끌어 당깁니다. 자유가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자유를 자유롭게 활용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수필가 도미니크 크로는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에서 "우리는 공간을 채우느라 공간을 잃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디 공간 뿐이겠습니까? 아내는 자녀와 남편의 사랑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사랑"을 잃어버립니다. 가족의 소중한 시간을 채우주기 위해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립니다. 자녀와 남편의 자유로움을 채워주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프리랜서인데 말 그대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인생을 걸고 시작한 나만의 삶이 가정에 놓여있지만 여전히 계약직과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프리랜서라고 말할 수 있는 아내는 진정 프리랜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겪는 힘들음을 홀로 이겨내야 하는 인생의 짐도 그 누구의 짐 보다 다소 무겁습니다.

"좋은 구두는 당신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준다"는 드라마의 대사가 기억납니다. 저는 이 대사를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해 볼 때, "좋은 만남은, 좋은 공간은 그 사람을 좋은 기억의 공간으로 데려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3주동안 아내에게 진짜 프리랜서의 삶을 경험하도록 배려하고자 합니다. **6년 만에 방문하는 한 국립정, 그리웠던 가족들, 동생들, 그리고 친구들과 잠시나마 여기서의 삶은 잊고, 프리랜서로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기억들을 축적했으면 합니다.** 일상을 잠시 벗어난 현장에서 눈과 귀로 주어진 풍경과 소리를 흡수하다보면, 아내 맘 속으로 뭔가 의미 있는 것들이 흘러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선한 작용을 통해 일상의 감사와 행복함으로 분출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힘들었을 때, 그 누구보다 믿음의 눈을 부릅뜨고 흔들릴 수 밖에 없었던 부족한 제 자신의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아내에게 감사한 마음을 이번 여행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싶습니다. 기도하시는 사모가 건강하고 안전한 여정을 보내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세상을 그리스도께로 연결하는 브릿지 교회 담임목사 임무영 드림



41 S Rohlwing Rd. Palatine, IL 60074 /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 www.chicagobridgechurch.org

차세대 사역자: Grace Lee(유치부), Ahyuwani(Youth), Janice Kim(유/초등부)
담임목사: 임무영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지금! 바로 네 옆에...
나는 결코 너를 떠난 적이 없었어"

완벽한 사랑이 머무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
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갈등과 상처가 전혀 없는 곳
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
하고자 몸부림 치는 교회!

완벽한 하나님께서 이루어
진 곳은 아닐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
게 하심**을 힘써 지켜내
기 위해 몸부림 치는 교회!

항상 은혜로운 말씀은 아닐
지라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을 삶의 열매로 남기기 위
해 몸부림 치는 교회!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
을 **그리스도께로** 연결
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바로 그 **브릿지 교회**로
여러분을
초 / 대 / 합 / 니 / 다



- 교회비전**
1. 예배 감격을 회복하는 교회
 2. 성도의 교제로 따뜻한 교회
 3. 구제와 섬김에 솔선수범하는 교회
 4. 하나님 선교에 쓰임받는 교회

2023 표어: "복음을 살아내는 선교적 교회"

예배인도: 임무영 담임목사

사도신경..... 다같이
여는 찬양..... 브릿지 찬양팀
대표기도..... 1부)이은신 전도사
2부) 손유기 집사
헌금찬양..... 다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 430장)

헌금기도..... 임무영 목사
평화의 인사..... 다같이
교회소식..... 임무영 목사
성경봉독..... 임무영 목사

빌립보서 4:4-14
(Philippians 4:4-14)

설교..... 임무영 목사

"주님 여기에 계십니다."
(The Lord, my Savior is here)

설교 후 찬양..... 다같이

"주님 여기 계시기에"
(The Lord is here)

*축도..... 임무영 목사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 Please stand up if available)

예배시간 The Bridge Fellowship Church of Chicago			
구분	시간	장소	
주일예배 1부	10:30 am	본당	
주일예배 2부	12:00 pm		
말씀묵상훈련(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화-금)	6:00 am		
새벽예배(토)	6:00 am		
다음 세대 예배	영아부	12:00 pm	Nursery
	유치부	12:00 pm	Room 14
	유 / 초등부	12:00 pm	Room 12
	Youth Group	12:00 pm	소예배실

1. 환영: 시카고 브릿지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 정성껏 준비된 식사와 함께 성도간의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길 바랍니다.

- 2. 공지사항**
- a. 2023년도 9월 운영위원 회의록 열람 (교회 정문 비치)
 - b. 2023년도 9월달 생명의 삶 Pick up (문의: 전성민)
 - c. 선교사 후원에 따른 개인별 선교 헌금 봉투를 로비에서 pick up(매달 3, 4주일)
 - d. 브릿지 **교회 홈페이지** 이용: www.chicagobridgechurch.org
 - e. 브릿지 **교회 인스타그램(Instagram)** 오픈: ID (chicagobridgechurch)
 - f. **온라인 헌금 안내:** Zelle 이용(Chase), **수신 이메일: Thebridgechurch.chicago@gmail.com**
 - g. **에너지 절약과 관련하여 7,8월은 No Tie로 지냅니다.**

- 3. 예배및 훈련**
- a. 토요 새벽예배: 9/2(토) 6am **예배소서 강해 3/ 현장 & Zoom**
 - b. 1부예배: 10:30am (소예배실) / **성찬주일:** 9/3(주일) 2부예배

- 4. 예배시 헌금시간 변경안내**
- a. **변경 전:** 예배시간 중 헌금 / **변경 후:** 예배실 들어오실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고 오시길 바랍니다.
 - c. 적용일: 9월 첫 주일부터 **(9/3주일부터)**

- 5. 차세대 젊은부부를 위한 영아부, 유치부 자원봉사 sign up 시작부부를 위한 영아부, 유치부 자원봉사 sign up 시작**
- a. 기간: **8/13(주일)-27(주일)** / 위치: 친교실 입구
 - b. 대상: 자원자 모두 (가급적 50대 이후 되시는 분들의 싸인업을 부탁드립니다.)
 - c. **지원자 오리엔테이션: 8/31(목) 7:30pm, Zoom**

- 6. 찬양팀 세미나**
- a. 일시: 8/27(주일) 4pm
 - b. 장소: 본당 / 대상: 찬양팀, 찬양팀에 join하기 원하시는 분, 그리고 기타 관심 있으신 분들
 - c. 강사: 이진욱 교수 (시카고 노던 세미나리 Worship Department 학과장)

- 7. 2023 하반기 말씀묵상훈련 저녁반 (8주 과정)**
- a. 기간: 9/13(수)-11/1(수), **매주 수요일 7:30pm** / 장소: 교회 & Zoom
 - b. 내용: **요한계시록** / 강사: 임무영 담임목사 (**Sign up-안내 데스크**)

- 8. 2023 하반기 말씀묵상훈련 오전반 (8주 과정)**
- a. 기간: 9/13(수)-11/1(수), **매주 수요일 10am** / 장소: 교회 소예배실
 - b. 내용: **예배소서** / 강사: 임무영 담임목사 (**Sign up-안내 데스크**)

- 9. 주일 오전 Q.T 모임 안내**
- a. 시간: 매 주일 10:30am / 장소: 친교실 / 문의: 전성민 집사

10. 교역자 동정: 김지영 선생 휴가 (9/3, 9/10)

11 시카고 브릿지 교회 소개 브로셔 배포: 개인 / 사업체 픽업 준비 (영문/한글)

- 12. 예배 및 봉사위원**
- a. 이번 주일 친교: 박철수 / 다음 주: 손무경
 - b. 다음 주 기도: 1부: P.Ahyuwani / 2부: 신수희
 - c. 8월 안내및 헌금위원: 전성민, 길한나(헌금) / 박재홍, 김정미(안내)

13. 지난 주 출석: 어른(91), 다음세대(34), 방문(6) / 합계: 125명

<브릿지 소모임 질문>

1. 최근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샘솟았던 경험이 있었다면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2. '임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